

“전북교구 도약 함께 이끌자”

태고종 전북교구, 송년법회로 한 해 마무리

무술년 새해에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종도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교구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은 구랍 26일 종무원청사 내 영산작법보존회 전승관에서 ‘전북교구 주지총회 및 송년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 전법사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도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성 스님 취임과 함께 전북교구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종도들의 힘을 모아 전국제일의 교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송년사에서 “전북교구 각 사암스님들과 교임 전법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구 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며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공심으로 종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전북교구 종무원은 열린 종무행정과 불교전통 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상해 놓은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 진안분원 쌍봉사 보경 스님이 봉사대상을, 임실 · 순창분원 장덕사 청암 스님이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주지총회에서는 오는 2023년 새만금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서해 영산용왕대재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부에는 복지국장 행담 스님의 사회로 탑 밴드 퓨전난타, 색소폰 연주, 초청가수 민정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종도 노래자랑이 열려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는 추첨을 통해 크고 작은 경품이 전달됐으며, 도광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자비의 쌀 500kg을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복공존 문화공간 ‘쿠무다’ 새 출발!

창립 4주년 맞아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 불사 나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창립 4년 만에 새로운 불사 공간을 마련하고 도약을 준비한다. 쿠무다는 창립 4주년 기념식을 맞아 대중에게 미래 문화포교 도량 청사진을 제시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주지 주석)는 구랍 24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쿠무다 내 카페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 주석 스님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가 공존하는 행복 공존 도량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무다는 송정 바다가 보이는 일대에 대지면적 604㎡, 연면적 2376㎡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8층인 불사를 진행한다. 지하에는 명상실과 공연장 등 다목적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카페, 문화교육공간, 힐링 프로그램 공간(휴휴정)이 각각 위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성장한다는 포부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의 존재 이유는 행복 공존이다. 부처님의 전법 활동은 바로 행복을 알려 주시려 한 것이다.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 두 가지 행복 모두 공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이곳의 이야기와 모습은 복합문화공간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작품”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쿠무다 창립 4주년 기념식은 국내 최초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Kon)과 가요 ‘칠갑산’의 주인공 가수 주병선의 무대 그리고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북 콘서트로 진행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콘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다 함께 노래를 불렀다.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스님들은 이웃종교를 상징하는 산타와 루돌프 인형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종교의 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4년 만에 최고 문화도량 성장
북 콘서트 및 화려한 음악공연
新불사 발표, 힐링 공간 우뚝
“행복 공존 문화도량으로 정진”

목종 스님은 최근 출판한 책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을 설명하며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목종 스님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하고 갈구하며 행복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미 자신 안에 행복은 있으며 이것을 진여자성(眞如自性)이라 한다. 바로 구하지 않는 즐거움”이라고 조언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의 4주년 기념식. 쿠무다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지하 2층, 지상 8층의 문화도량불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환호했으며, 가수 주병선의 무대에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참가자들은 이런 공간을 마련해준 주석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강우숙(61 · 해운대구) 불자는 “연말에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준 스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경옥(66 · 해운대구) 불자는 “요즘은 문화와 힐링이 대세다. 오늘 아름다운 음악 무대도 좋았고, 목종 스님의 책 이야기도 듣는 동안 기쁨이 가득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공간을 불사한다는데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종합문화도량을 지향하고, 일반인과 종교를 잇는 다리 역할로 문화 포교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매달 불교 전시뿐 아니라 북 콘서트, 음악 예술 무대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예술전공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공연과 방송 후원으로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기자

고루한 冬至 옛말, 사찰 ‘톡톡’ 튄다

부산서 민속명절 동지
사찰 이색행사 잇달아

민속명절 동지를 맞아 불공뿐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구랍 22일 경내 법당에서 장학생 21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은 특히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함께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눔에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이대호 선수는 원오사가 운영하는 명정장학재단에 매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생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1명, 동부산대학교 불교동아리 5명이 선정됐으며 총 1200만원이 수여됐다.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대학생을 위한 동지 팥죽나눔 행사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천불정사는 구랍 21일 부산대 정문에서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눴다. 이에 앞서 천불정사에서 숙식하며 고시공부에 매진하는 학생과 신도자녀들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 각 사찰에서 동지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프로야구 이대호 선수가 원오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고담 스님은 “동지 이후 길어지는 해는 곧 희망을 상징한다”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학생들이 팥죽도 먹고 더욱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지를 맞아 천정산에 오른 학생들도 있다. 지난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천성산 내원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명여고 학생들이다. 이 자리에는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도 함께했다.

대명여고(교장 송동영) 학생 20여 명은 구랍 21~22일 천성산 답사를 실시하고 동지불공 및 팥죽의 의미를 배웠다. 아울러 자연보호를 위한 평화의 탑 쌓기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천성산 깊은 골에 위치한 안적암에서 내원계곡을 지나 원효봉 정상을 오르는 1박2일 답사에 동참했다. 내원사에도 방문해 참배하고 동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익혔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2018년에는 천성산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물길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연을 만나는 교육의 창을 천성산에서 열어가고자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지 팥죽행사를 진행했다. 삼광사는 구랍 22일 동지 축원 불공을 올렸다. 새벽 3시와 오전 10시로 나눠 진행했으며 1만 명의 시민이 찾았다. 삼광사는 동지를 위해 팥죽 1만2000인분을 준비했고, 부산 서면 영광도서 맞은편에서 전통공연 무대와 소원지 쓰기,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체험 등을 진행하며 팥죽을 시민들에게 나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고운사 · 사찰음식협, 포항지진 이재민 위로

구랍 23일, 도시락 식사 대접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와 (사)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회장 도륜)는 구랍 23일 강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사찰음식 도시락을 대접했다.〈사진〉 이날 고운사와 사찰음식문화협회는 포항 흥해실내체육관과 독도체육관을 방문해 약 600명의 이재민들에게 사찰음식도시락을 대접하고 위로했다.



구랍 11일 고운사 1차 급식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장 도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협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밥, 채계장, 사찰식반찬 등으로 구성된 사찰음식 도시락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주변청소와 정리정돈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자공
교육국장 향광 비구니종무국장 덕심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당포사(종철)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도명) 용연사(취암) 보문선원(보문)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약불암(혜각)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쌍암사(덕산)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은진정사(고경)
쌍암사포교원(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천운사(선봉)

종단승려, 신도일동

■ 입종 상담 및 접수 안내 ■
① 대상 : 승려 또는 승려나 포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
② 문의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51)514-8766
H·P 010-4983-1494

■ 총본산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